

# 낙락헌(樂樂軒)

Knock Knock H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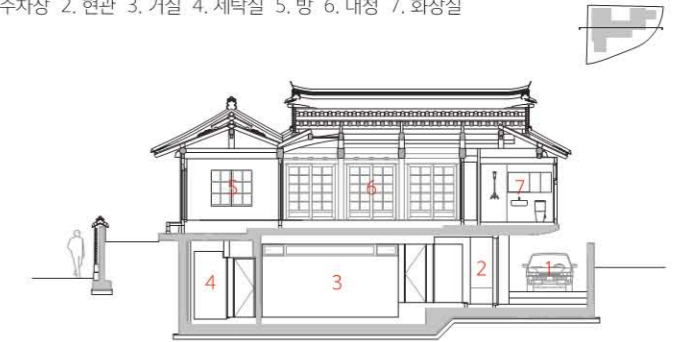
설계자 \_ Architect. 조정구 \_ Cho, Junggoo  
(주)구가도시건축 건축사사무소 \_ Guga Urban Archite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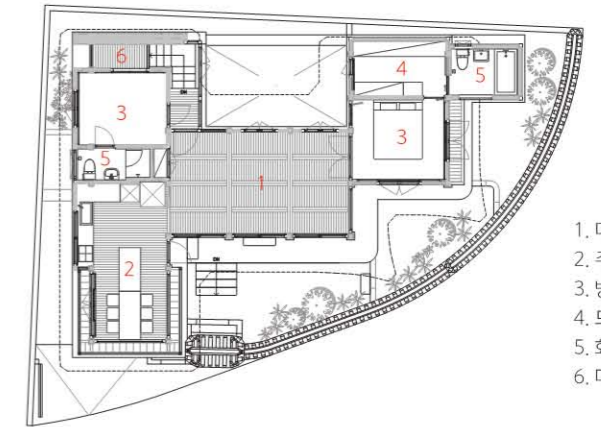
건축주 | 이병철, 김은진  
감리자 | 조정구 \_ (주)구가도시건축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이병철  
설계팀 | 조정구, 조지영, 양수민, 박진경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50길  
주요용도 | 단독주택  
대지면적 | 230.00㎡  
건축면적 | 91.70㎡  
연면적 | 175.02㎡  
건폐율 | 39.87%  
용적률 | 39.87%  
규모 | 지하 1층, 지상 1층  
구조 | 한식목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외부마감재 | 스타코, 한식기와(지붕재)  
내부마감재 | 원목마루, 한지(벽 및 장판), 지정도장  
설계기간 | 2014. 03 - 2014. 11  
공사기간 | 2015. 03 - 2016. 03  
사진 | 박영채

Client | Lee, Byeongcheol / Kim, Eunjin  
Supervisor | Cho, Junggoo \_ Guga Urban Architecture  
Construction | Lee, Byeongcheol  
Project team | Cho, Junggoo / Joe, Jiyoung /  
Yang, Soomin / Park, Jinkyung  
Location | Yeonseo-ro 50-gil, Eunpyeong-gu, Seoul, Korea  
Program | Single Family House  
Site area | 230.00㎡  
Building area | 91.70㎡  
Gross floor area | 175.02㎡  
Building to land ratio | 39.87%  
Floor area ratio | 39.87%  
Building scope | B1 - 1F  
Structure | Wood frame, RC  
Exterior finishing | Stuc-O-Flex, Kiwa(Korean traditional roof tile)  
Interior finishing | Wood flooring, Korean wallpaper,  
Vinyl paint finish  
Design period | Mar. 2014 - Nov. 2014  
Construction period | Mar. 2015 - Mar. 2016  
Photograph | Park, Youngchae

1. 주차장 2. 현관 3. 거실 4. 세탁실 5. 방 6. 대청 7.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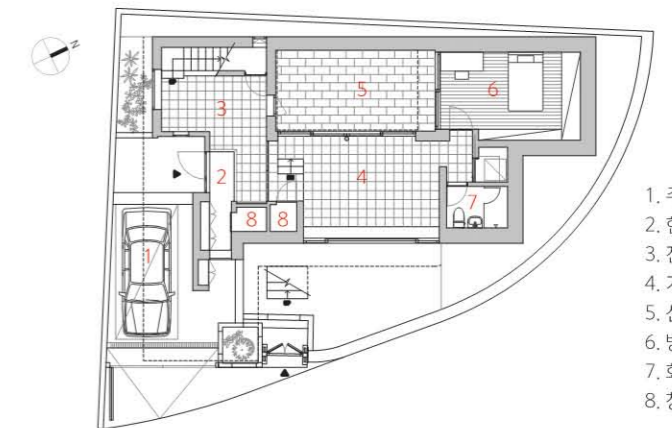


횡단면도



1. 대청  
2. 주방 / 식당  
3. 방  
4. 드레스룸  
5. 화장실  
6. 다락

1층 평면도



1. 주차장  
2. 현관  
3. 전실  
4. 거실  
5. 선큰마당  
6. 방  
7. 화장실  
8. 창고

지하 1층 평면도 0 1 3 6 10m



필로티 구조로 누마루 슬래브를 '한 손으로 쟁반을 받치듯이' 띄워 올려, 그 아래로 주차와 현관, 수납 등을 계획하였다. 나머지 공간에도 선근과 채광창, 자연스러운 레벨 변화를 주어 한옥 '아래 공간'을 '밝고 쾌적한 거주공간'으로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실제로 만들어진 공간은 주차와 현관 등 한옥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넘어, 모던한 공간 속에 가족들이 모여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 '독자적인 삶의 영역'이 되었다.

한옥을 현대건축의 중요한 주제로 보고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낙락헌은 이러한 우리의 태도가 잘 드러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한옥의 경계를 과거의 형상

속에만 묶어두지 않고, 우리 시대의 기술과 개념을 적용하여 새로운 형상으로 그 경계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지금 우리들의 삶과 호흡하는 '살아있는 집'을 만들기 위해 전통과 현대의 양식이 유연하게 공존하는 보편적인 생활양식, 즉 '주거의 새로운 스타일'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우리의 삶이 이미 현실과 가상공간 속에서 매우 복합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이러한 '맥락의 재구성'은 앞으로의 건축에 새로운 가능성이 될 것이다.

1. 마당에서 본 식당 2. 선근에서 본 한옥 3. 대청 4. 식당 5. 전실





The Numaru (upper floor) slab with pilotis is raised 'as if supporting a tray with one hand,' and the space for parking, entrance, and storage is designed beneath it. By giving a sunken, skylight, and natural level change, the rest of the space could become a 'bright and comfortable living space.' Indeed, space plays the role of supplementing the shortcomings of hanok, such as parking and entrance, and has become "their own living area" where the family gets together in a modern space for delightful conversation.

Our work continues, regarding hanok as an essential theme of

modern architecture. Nakrakheon (knock knock) is a kind of work that shows our attitude well. We tried not to fix the boundaries of hanok only in the form of the past, but to expand the boundaries of hanok to a new level by applying new technologies and concepts of our time. In addition, to create a 'living house' that breathes together with our lives now, we attempted to propose a universal lifestyle in which both traditional and modern styles coexist flexibly, that is, a 'new style of residence'. Considering that our lives are already very complex in real and virtual spaces, this "reconstruction of context" will be a new possibility for future architecture.